

##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좌 현 숙

(호남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은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된 역할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졌다. 반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질 경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우울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논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학업 스트레스, 우울, 성역할 고정관념, 조절효과

■ 투고일: 2014.1.31    ■ 수정일: 2014.3.21    ■ 게재확정일: 2014.5.2

## I. 서론

2013년 전국의 중·고등학생 72,4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30.9%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sup>1)</sup> 2005년부터 실시된 이 조사에서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29.9%에서부터 41.4%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균형이나 문제행동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은 심각할만한 수준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연구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38.9%가 우울증상을 보였고, 21.2%가 명확한 우울증상을 보였다(조성진 외, 2001). 청소년 우울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로서 또래관계 및 학교 적응 등 청소년의 발달과업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이근영 외, 2011; 정철상, 2011), 행동장애, 약물남용, 반사회적 행동, 자살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김재엽 외, 2013a; Auerbach et al., 2010). 처음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의 60%가 다시 우울을 경험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고(Evans & Andrew, 2005), 이후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겪을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인기 정신병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발달상의 특징으로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개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의 주된 예측인자가 우울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문경숙, 2006; 오승환, 2009; 우채영 외, 2010; Huff, 1999; Mazza & Reynolds, 1998),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우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관심이 모아지면서 청소년 우울증상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우울의 예측변인으로 일관되게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다(김빛나·박주희, 2013; 김재엽 외,

<sup>1)</sup>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이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는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7만 5천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15개 영역에 대해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2013a; 2013b; Connolly et al., 2010, Undlheim & Sund, 2005). 청소년은 발달상의 특성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학업, 또래관계, 가족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해 겪는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영주·좌현숙, 2008; 이경숙·김정호, 2000; 홍광식 외, 1994; Lee & Larson, 2000).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의 청소년 문제가 학업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풍토에서 파생된다. 전인교육보다는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명자 외 2002; 김빛나·박주희, 2013; 윤명숙 외, 2009; 이근영 외, 2011; 임성택 외, 2011; Lee & Larson, 2000).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박재연·정익중, 2010; 우채영 외, 2010; 이근영 외, 2011; 이서원·장용언, 2011), 공격성(채진영, 2012), 외현화 문제(문수연·강지현, 2013)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병리를 유발케하는 인자로 보고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Grant 외(2004)는 스트레스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간의 관계에서 매개나 조절변인 등 제3의 변인이 작용한다고 하면서, 스트레스와 정신병리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최정아, 2011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간 직접적 관계를 포함하여 제3의 변인을 포함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학업이나 또래관계, 외모 등 특정 영역의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를 규명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통칭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스트레스 자극원만으로는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에 초점을 두어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변인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이 ‘왜’, ‘어떻게’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국내에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에서 자아통제의 매개효과(정철상, 2011),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김정미, 2010)를 검증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반면, 조절효과의 분석은 어떤 효과가 ‘어떤 상황’ 혹은 ‘누구’에게 발생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 적합한 방법이다(Baron & Kenny, 1986; Hayes & Mattes, 2009).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어떤 청소년은 정신병리나 부적응 같은 부정적 발달경로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청소년이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조절효과를 통해 규명하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고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실천적 지침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므로 조절변인의 규명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렇다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제3의 변인은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주목하였다. 스트레스처럼 심리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인지적 요소인데,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억압하고 내재화하려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아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 어려움을 내재화하여 우울이라는 심리적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이들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인지적 요소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경쟁위주의 억압적 교육환경 하에서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학업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예방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 및 성역할 고정관념과 우울의 관계를 탐색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와 학업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욕구와 자원 활용 능력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걱정스러운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Germain & Gitterman, 1995).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를 비롯해서 심리적·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스트레스의 발생원인은 환경적 요인에서부터 심리적인 것까지 다양한데,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는 학교나 학업관련요인, 친구문제, 가족관련 요인, 성격문제 등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 스트레스 중에서도 학교와 관련된 영역, 가족관계 및 친구 관계 등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요셉 외 2011; 송영명·이현철, 2011; 염행철·조성연, 2007; 임은미·정성석, 2008; 이경상·박현수, 2004; 황여정, 2007).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발달적 과업의 성취뿐만 아니라 학력경쟁을 유발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도 인해 성적에 대한 압박, 과도한 학업량, 학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1998년 57.1%에서 2006년 67%로 약 10%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의 하나가 학업 스트레스라는 연구결과(임은미·정성석, 2008; 황혜정, 2006)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이해되었으나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의 사회적 조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증가는 학업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 및 심각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이서원·장용언, 2011).

일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상태(조강래, 2007),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등과 같이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오미향·천성문, 199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 2.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균형이나 문제행동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불안이나 우울같은 증상은 발달단계상의 특징과 맞물려 많은 청소년이 경험한다.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인 청소년기에는 어느 때보다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슬픔이나 분노, 흥분 등의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면 심한 내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은 급격하게 증가한다(Hankin et al., 1998).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수준은 발달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대면 개인상담 2,965건 중 정신건강 상담의 비중이 607건으로 20.5%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우울·위축문제가 43%에 해당된 점을 보면(한국청소년상담원, 2012), 많은 청소년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울과 위축같은 내재화 문제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울한 정서 혹은 우울감은 일반적으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을 특징으로 하며, 수면장애나 식욕과 체중감소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우울은 일반적인 특징에 더하여 불안이나,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물질관련장애, 그리고 섭식장애와 흔히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외형적으로는 충동적이고 과다에너지로 인한 부적응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우울하고 무기력한 정서가 기저에 있기 때문에 성인 우울에 비해 발견이 쉽지 않거나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상의 특성, 그리고 청소년기 정서의 특성 때문에 청소년 우울같은 문제는 그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기 우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이 자살과 같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 및 성인기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음이 제기되면서 청소년의 우울문제에 관심

을 기울이게 되었다(Bolme-Lake, 2007). 청소년의 우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기 우울의 유병률은 10~20%로 높게 나타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청소년 우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Lewinsohn et al., 2001; 우채영 외, 2010: 재인용).

청소년기 우울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우울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김빛나·박주희, 2013; 김재엽 외, 2013a; 2013b; 김정미, 2010; Connolly et al., 2010, Undlheim & Sund, 2005). 우울발생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가운데 스트레스 노출모형에 의하면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는 우울을 발생하게 하고 지속시키며, 이후에 재발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고려된다(Cole et al., 2006). 이 이론에 근거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우울감도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Abramson et al., 1989; Hammen, 1988; Hankin et al., 2001).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기제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때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 등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Huff, 1999; Mazza & Reynolds, 1998).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가운데 특히 학업 스트레스는 많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의 핵심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외, 2002; 김빛나·박주희, 2013; 김재엽 외 2013a; 문영주·좌현숙, 2008; 윤명숙 외, 2009; 이근영 외, 2011; 임성택 외, 2011).

이상의 연구를 종합할 때, '성적이나 시험, 학업능력 및 학업에 대한 동기저하 등 학업에 관련된 영역에서 학생들이 겪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인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며 특히 우울을 높이는 주요 변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3.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수의 청소년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있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발달산물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즉, 동일한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신병리나 심리장애 등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우울같은 심리장애나 정신병리를 일으키게 되는가? 심리장애나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모델 가운데 하나인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에 의하면, 우울과 같은 심리장애는 개인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Holmes & Rahe, 1967; 이인정, 2011 재인용). 취약성이란 인간의 내외적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제로서 개인을 스트레스의 영향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취약성은 단순히 유전적 소인이나 체질 같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도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정신병리에 취약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어떠한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견디는 힘이 낮아서 쉽게 심리장애를 가질 수 있다(김기환 · 전명희, 2000).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장애에 있어서 개인의 취약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잘 보완해줌으로써 개인의 취약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장애를 유발하는 원인과 과정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평가된다(권석만, 2007).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의 관점에 의거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이 모두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 규명된다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울이라는 심리적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사전에 변별해냄으로써 극단적인 정신병리 및 문제행동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차단하고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가 우울과 같은 발달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인 중 일부는 그 자체로도 혹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유발하거나 상승시키는 반면 어떤 변인은 그와는 반대로 우울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혹은 영향을 덜 받도록 중간에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보호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송유미 · 이선자, 2011; 이인정, 2011), 자아존중감(최미례 · 이인혜, 2003) 같은 요인이 보고 되었지만, 취약성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라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이 고위험군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 및 사전적 개입을 위해 취약성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가운데 인지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에서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자연적인 정서반응으로 우울감을 느껴 우울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때 인지적 취약성 요인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Ingram et al., 1988; 김빛나 · 박주희, 2013 재인용). 즉,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우울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인지적 취약성 요인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빛나 · 박주희, 2013; 임성택 외, 2011).

우울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변인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성역할이란 한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행동, 태도, 가치, 특성의 기대치를 의미하는데(김경미 · 양혜영, 2005), 이는 사회성원으로서 필요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인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다(박영숙 외, 1998). 성역할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에게 기대되는 행위나 특성은 권장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행위는 발달시키지 못하도록 제제를 받는다(정혜정 외, 2010). 각 사회는 대다수의 구성원이 비슷한 성역할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의 규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성역할을 문화권의 모든 남녀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정적인 견해를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한다(Schau & Tittle, 1985; 서영숙, 1986 재인용).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일련의 신념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정혜정 외, 2010),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익중, 2005).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떠한 과정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성역할 사회화이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는 출생 후 성장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심리사회적 어려움

을 성유형화된 행동 양식으로 더 많이 드러내어 각기 상이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게 된다(김현정, 2005; 장휘숙, 2005). 즉,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 및 또래집단이 여아에게는 수줍음이나 의존적 행동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흔히 ‘여성적’이라고 인식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성유형화된 행동이 조성된다(Keenan & Shaw, 1997). 이러한 반응에 따라 여자 아이들은 스트레스처럼 심리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남자 아이들은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장휘숙, 2005). 요컨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역할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태도와 행동을 조성하게 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의 표출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스트레스처럼 심리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성유형화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청소년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문제, 성역할 고정관념간의 관계를 연구한 유혜경(2011)의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고를 가질수록 우울이나 불안같은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대해 성역할 관습모델을 제시한 Huselid와 Cooper(1994)는 전통적 성역할에 순응하는 성전형적인(sex-typed) 개인은 성에 적합한 증상을 높은 비율로 보여 전통적인 여성역할에 순응하는 개인은 내재화된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김혜래, 2003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의 경우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무한경쟁과 성취지향의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인 학업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중 하나이면서 최근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정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발휘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중학교 2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연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중 표본으로 선출된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 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중학생과 부모 조사 모두를 성공한 3,449명의 전체 사례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조사 대상은 4차년도 응답자 총 3,121명이며, 남학생 1,566명(50.2%이며, 여학생 1,555명(49.8%)으로 비슷한 성별분포를 나타냈다<sup>2)</sup>.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sup>3)</sup>

##### 가.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우울은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을 의미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증상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우울은 청소년 스스로가 평상시 느끼는 외로움, 슬픔, 불안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분석자료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우울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

<sup>2)</sup>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표본으로 선정 및 구축된 청소년은 3,449명이다. 따라서 1차년도 응답자는 총 3,449명지만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4차년도 조사의 응답자는 총 3,121명이다. 미응답자 328명은 해외 유학 및 이민, 가출 후 연락두절, 응답 거절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sup>3)</sup> 주요 변수의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내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 자료의 설문지에서 추출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척도의 출처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연구방법상에 있어 한계로 작용함을 밝혀둔다.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의 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우울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 5문항의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13으로 나타났다.

## 나. 예측변인

본 연구의 예측변인은 학업 스트레스이다. 학업 스트레스는 ‘성적이나 시험, 학업능력 및 학업에 대한 동기저하 등 학업에 관련된 영역에서 학생들이 겪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46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 다. 조절변인

본 연구의 조절변인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을 의미한다(Broverman et al., 1972). 남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내용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취와 리더십, 표출 등을 강조하는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폭력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되며, 억제와 순응 등을 강조하는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된다. 따라서 우울에 미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분석자료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을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역할

에 대한 고정관념을 각각 측정하고 있다.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남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자에게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각각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3문항의 평균점수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 성역할에 대해 고정적 인식과 견해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역할고정관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 .783,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신뢰도는 .792로 나타났다.

## 라. 통제변인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가구월소득은 한국청소년패널연구에서 만원 단위의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된 가구 월소득을 사용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형태를 측정하는 가족구조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및 부모가 부재한 경우에는 1로 부호화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 Window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항으로 구성된 학업 스트레스, 우울, 성역할 고정관념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는데,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는 성차가 존재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녀 청소년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주요한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제3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하는 것이다. 측정오류로 인한 검증력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다소 복잡하고 최적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Marsh, 2002; Frazier et al., 2004; 이상균, 2008 재인용), 사회과학연구에서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예: 강현아 외, 2012; 여진주, 2009; 이인정,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측정오차로 인한 검증력 약화를 대표본으로 보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한계에 대응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MLR모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으로 구성된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모형에 투입시킨 다음,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증을 실시하고, 상호작용항의 투입 전과 후의 모형 설명력의 증감을 검증함으로써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이때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설명력 변화량( $\Delta R^2$ )이 유의하면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Aiken & West, 1991).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학업 스트레스, 성역할 고정관념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연속변인으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추정치의 왜곡과 검증력 약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Hayes, Glynn, & Huge,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도 터미변수를 제외한 예측변인, 조절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한편,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설명력 변화량이 유의하다면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총괄 F 검증 방법(omnibus F test)은 조절변인이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상균, 2008). 즉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변인이 억제하는지 혹은 상승시키는지 상호작용의 양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절변인의 특정한 조건값 또는 평균과  $\pm 1$  표준편차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도식화하는 단순기울기검증법이 권장된다(Aiken & West, 1991). 조절변인의 특정한 조건값에서 예측변인이 갖는 기울기를 단순기울기(simple slop)라고 하는데,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식( $E(Y_{X,Z})=g_0+g_1X+g_2Z+g_3XZ$ )에서 조절변인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 예측변인의 단순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기울기 차이를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연속변수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명목변수는 사례수(N)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3,121명이며 성별분포를 보면 남학생 1,566명(50.2%)이며, 여학생 1,555명(49.8%)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우울감과 학업 스트레스, 성역할 고정관념은 최소 1점에서 5점까지 분포할 수 있는데 우울감 평균은 2.78(SD=.78)로 나타나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학업 스트레스 평균은 2.98(SD=.82)로 나타났다. 여성성역할 고정관념 평균은 2.33(SD=.80),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평균은 3.45(SD=.83)으로 나타나 남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은 약 322만원이었으며, 가족구조를 보면 부모님이 모두 계시다고 응답한 경우는 2,851명(91.3%)이며, 부모님 모두 계시지 않거나 부모님 한분만 계신 응답자는 217명(7.0%)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자별로 보면, 우울감은 남학생 2.65(.78), 여학생 2.91(.77)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는 남학생 3.06(.86) 여학생 3.28(.78)로 나타났다.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 2.60(.79) 여학생 2.05(.71)로 나타났으며,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 3.53(.80) 여학생 3.37(.85)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경우 부모님 모두 계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424명(90.0%), 여학생은 1,427명(91.8%)이며, 부모님 모두 계시지 않거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만 계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16명(7.4%), 여학생은 101명(6.5%)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 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첨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정상분포에서 심각하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Kline, 2005),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N=3,121)

변수명	평균(SD)	왜도	첨도	남학생	여학생	t
				N=1,566	N=1,555	
우울	2.78(.78)	-.098	-.316	2.65(.78)	2.91(.77)	-9.44***
학업 스트레스	3.17(.83)	-.413	.179	3.06(.86)	3.28(.78)	-7.48***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2.33(.80)	.260	-.040	2.60(.79)	2.05(.71)	20.67***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3.45(.83)	-.487	.565	3.53(.80)	3.37(.85)	5.57***

##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및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계수를 제시하였다(표 2). 가구월소득과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간에는 정적 관계를 보여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았다( $r=.034, p<.10$ ). 가구월소득과 학업 스트레스 간에는 정적 관계를 보여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085, p<.01$ ). 가구월소득과 우울은 부적 관계를 보여 가구 월소득이 높아질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졌다( $r=-.039, p<.05$ ).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1. 가족구조	1						
2. 가구월소득	-.240**	1					
3. 여성성역할고정관념	.017	-.015	1				
4. 남성성역할고정관념	-.038**	.034*	.317**	1			
5. 업 스트레스	-.093**	.085**	-.066**	.176**	1		
6. 우울	.005	-.039*	.024	.097**	.357**	1	
7. 성별	.018	.034	.347***	.099**	-.133**	-.166**	1

† p<.10 \* p<.05 \*\* p<.01

주: 가족구조는 더미 처리함. 가족구조(한부모와 부모부재가구=1)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정적 관계를( $r=.317$ ,  $p<.01$ ),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학업 스트레스는 부적 관계를( $r=-.066$ ,  $p<.05$ ) 보였다.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학업 스트레스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r=.176$ ,  $p<.01$ ).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우울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r=.097$ ,  $p<.01$ ).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75$ ,  $p<.01$ ). 학업 스트레스와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부적관계( $r=-.066$ ,  $p<.01$ )를 보여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는 낮아지는데 ‘순응’과 ‘인내’, ‘억제’ 등을 내재화하도록 하는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경우 학업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표면적으로는 둔감하게 인지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성별은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과 정적 관계를( $r=.347$ ,  $p<.001$ ),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과도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r=.099$ ,  $p<.01$ )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학업스트레스( $r=-.133$ ,  $p<.01$ ), 성별과 우울간에도 부적 관계( $r=-.166$ ,  $p<.01$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3.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하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가족구조, 가족소득, 성별 등 통제변수와 학업 스트레스, 성역할 고정관념을 투입하였으며(모델1), 2단계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모델2). 연속변수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제외한 예측변인, 조절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모델1은 가족구조, 가구월소득, 성별 등 통제변수와 학업 스트레스,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투입한 모델이다.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 $b=.335, p<.001$ ). 즉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b=.093, p<.001$ ),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졌다. 반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하는지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2에서는 총 16.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설명력의 변화량( $\Delta R^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와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b=.043, p<.05$ )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항의 부호 해석은 정(+)의 값을 가질 때는 조절변수로 간주하는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다른 변인의 효과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호가 부(-)일 때는 조절변수값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다른 변인의 효과는 감소함으로써 이 변인의 효과를 억제함을 의미한다(Pedhazur, 1997; 강현아 외, 2012 재인용).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상승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절효과

구분		모델 1			모델 2			
		b	S.E.	b	b	S.E.	b	VIF
통계 변인	성별(남=1)	-.250***	.028	-.160	-.252* **	.028	-.16 1	1.160
	가족구조(비양친=1)	.144**	.054	.047	.144**	.054	.047	1.067
	가구월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1.069
예측 변인	학업 스트레스	.335***	.017	.352	.334***	.017	.352	1.078
조절 변인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093***	.019	.0956	.092***	.019	.094	1.265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025	.017	.026	.024	.017	.006	1.172
상호 작용 항	학업 스트레스 ×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043*	.020	.040	1.194
	학업 스트레스 ×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030	.018	-.03 1	1.197
상수값		2.960			2.967			
R <sup>2</sup>		.164			.166			
adj.R <sup>2</sup>		.163			.164			
ΔR <sup>2</sup>					.002†			

†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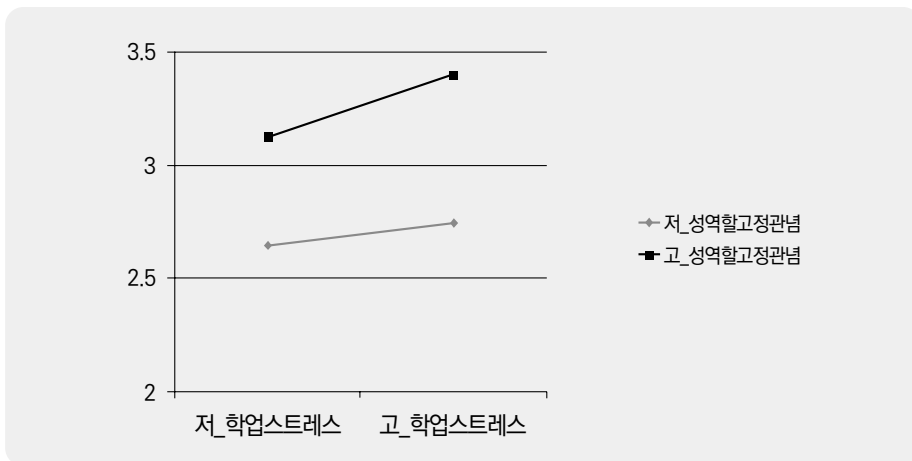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의 변화 정도가 급한 기울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역할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질 경우 즉, 여성 역할에 대해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에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평균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모두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순기울기의 크기는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인 경우,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순기울기의 크기는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인 경우,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및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기반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에 성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모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제한적이고 엄격한 성역할 사회화와 성역할 유형화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더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사회화 이론과 맥을 같이 하며, 선행연구(구정화, 2009; 김선정, 2002; 좌현숙, 2012)의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에게 더 많은 특권과 위신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동기가 약한 반면, 여학생은 그 반대일 수 있으므로,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양집단에서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남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는 여아에 대한 성역할보다 남아에 대한 성역할을 더 보수적으로 강조하여 남성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 발달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남성 성역할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기대를 가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은 커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재엽 외, 2013b; 문영주·좌현숙, 2008; 이은희 외,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여성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우울감은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을 비롯한 내재화 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유혜경, 2011; 한인영·홍선희, 2011)과 ‘순종’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성 성역할이 우울과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김혜래,

2003)와 유사하다.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으로서 우울, 불안, 위축 등 지나친 자기통제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내재화 문제는 전통적이며 지배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성역할 규범의 사회적 억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민성길 등, 1989).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 등을 절제하는 것을 여성의 역할에 맞는 사회적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외부적 스트레스에 대해 억제같은 심리적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우울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반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감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 역할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시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의 변화 정도가 커졌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우울이라는 심리적 어려움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취약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였는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에 대한 중압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Armacost, 1989; Steinberg, Dornbusch, & Brown, 1992),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청소년의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적 입시분위기와 과열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우울로 인한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경쟁적 입시제도의 개선 및 교육환경의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및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기적 관찰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 등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이차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순종'과 '억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고정되고 경직된 성역할 분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이 균형잡힌 성역할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별화된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김성연, 2006),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의 제거 및 양성평등적인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만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개인적 수준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가족이 성역할 사회화의 일차적 환경요인이기 때문이다. 가족환경 중에서도 부모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태도는 가장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성차별적이고 정형화된 성역할을 요구하기 보다는 유연하며 균형잡힌 성역할을 가질 수 있는 양육태도가 요구된다. 가정에서는 성차별적인 훈육을 지양하고 불평등한 남녀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학교교육은 평등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향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교과과정, 교사의 태도, 학교 조직 등에서 성불평등적인 요소가 많았고 그러한 학교환경 안에서의 성역할 사회화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입각한 경향이 강하였다(정혜정 외, 2009).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의 성역할 사회화가 훨씬 더 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고정관념적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역

할 관련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환경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교사들 역시 균형적인 성역할태도와 의식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양성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성교육이 학교현장을 비롯하여 청소년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행동을 비롯한 성에 대한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경직되고 획일적인 성고정관념들을 교정하고 성초월적인 성격형성 및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교과과정 및 내용에서 성불평등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교에서는 남녀 청소년 공히 균형잡힌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전통적이고 경직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을 증폭시키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청소년의 우울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같은 인지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와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 우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인지적 취약성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비롯하여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치료적 개입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취약성 관점에서 우울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 요인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정하였지만 그 외 다양한 취약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연구되어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취약성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인이 있는데, 2차 자료를 사용한 자료의 한계에 따라 다양한 통제변인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성역할 고정관념간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하여 다양한 통제변인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 조절효과 검증에서 설명력 변화량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과 성역할 사회화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설명력이 높지 않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의 불확실성 및 자료수집 과정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수 있도록 측정도구 등 연구설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좌현숙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이며, 현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성차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omeday1099@empas.com)

## 참고문헌

-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2012). 가정외 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pp.193-222.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제9차(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 구정화(2009).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학년 및 성별 차이 연구. *사회과교육*, 48(3), pp.35-46.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석만(2007).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미, 양혜영(2005).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 다차원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pp.1-20.
- 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송말희(2002).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3(2), pp.5-42.
- 김빛나, 박주희(2013).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4(3), pp.113-128.
- 김선정(2002).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 김성언(2006). 경찰활동과 성차: 경찰 하위문화와 여자 경찰관의 지위 갈등에 대한 경험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17(3), pp.139-159.
-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 신뢰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3), pp.103-126.
-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2013a).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1, pp.101-123.
-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2013b).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3), pp.99-126.
- 김정미(2010). 남녀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완벽주의와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 검증. *상담학연구*, 11(2), pp.809-829.
- 김현정(2001).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기 문제 행동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pp.81-95.

- 김혜래(2003).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성역할정체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pp.143-157.
- 문수연, 강지현(201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질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6), pp.3323-3339.
- 문영주, 좌현숙(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38(3), pp.353-379.
- 민성길, 이만홍, 강홍조, 이호영(1987). 환병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의학협회지, 30(2), pp.187-197.
- 박영숙, 김영임, 박연환(1998).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고정관념에 대한 비교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1), pp.51-62.
- 박재연, 정익중(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개인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2, pp.69-97.
- 서영숙(1986).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과 성평등역할교육에 따른 변화. 아시아 여성연구, 25, pp.185-217.
- 송영명, 이현철(2011). 한국 청소년의 교우관계 결정요인 분석 :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pp.91-112.
- 송유미, 이선자(20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 31(3), pp.795-811.
- 여진주(2009). 아동학대 보호요인의 효과: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부천.
- 염행철, 조성연(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태학적 변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9(2), pp.1-21.
- 오미향, 천성문(1994).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이해, 5, pp.63-96.
- 오승환(2009).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16, pp.52-73.

- 우채영, 박아청, 정현희(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pp.19-38.
- 유혜경(2011).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8(1), pp.67-85.
-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pp.131-156.
- 이경상, 박현수(2004). 청소년비행과 친구 스트레스. 제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21-132.
- 이경숙, 김정호(2000). 학업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5(1), pp.43-59.
-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pp.83-107.
- 이상균(2008).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7, pp.121-151.
- 이서원, 장용언(2011).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pp.111-136.
- 이은희, 최대산, 서미경(2000).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pp.69-84.
- 이인정(2011).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1(4), pp.34-62.
- 임성택, 김진호, 정의석(2011).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완벽성향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pp.243-260.
- 임은미, 정성석(2008).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정서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3-19.
- 장휘숙(2005). 발달정신병리(제2판). 서울: 창지사.
- 정의중(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 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pp.35-76.

- 정혜정 · 공미혜 · 전영주 · 정현숙(2010). 가족과 젠더. 서울: 신정.
- 정철상(2011). 고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의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9), pp.1-18.
- 조강래(2007). 고3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증상과 대처방식: 일반계 고등학생 남녀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진주.
- 조성진 외 6명(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pp.627-639.
- 좌현숙(2012).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궤적의 성차와 예측요인: 아동·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pp.237-263.
- 채진영(201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1), pp.71-87.
- 최미래, 이인혜(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증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pp.363-383.
- 최정아(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평가, 대처, 가족의사소통, 우울의 관계: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33, pp.197-222.
- 한국청소년상담원(2012). 2011 상담경향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 V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인영, 홍선희(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pp.477-498.
- 홍광식, 岡安孝弘, 津田彰(1994). 학교 스트레스의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8(1), pp.95-108.
- 황여정(2007).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영향요인: 사회풍토 및 사회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751-781.
- 황혜정(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pp.196-216.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pp.358-372.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rmacost, R. L. (1989). Perceptions of stressors by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4, pp.443-461.
- Auerbach, R. P., Eberhart, N. K., & Abela, J. (2010).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Canadian and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pp.57-68.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olme-Lake, T. L. (2007).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at-risk children and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D.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pp.59-78.
- Cole, D. A., Nolen-Hoeksema, S., Girus, J., Paul, G. (2006). Stress exposure and stress generation in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A latent trait-state-error approach to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1), pp.40-51.
- Connolly, N. P., Eberhart, N. K., Hammen, C. L. & Brennan, P. A. (2010). Specificity of stress generation: A comparison of adolescents with depressive anxiety, and comorbid diagnosis. *Inter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3(4), pp.368-379.
- Evans, D. L., & Andrew, L. W. (2005). *If your adolescent has depression or bipolar dis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zier, P. A., Tix, A., & Barron, E.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pp.115-134.
- Germain, C. B., & Gitterman, A. (1995). *Ecological perspectiv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 pp.816-824.
- Grant, K., Compas, E., Thurm, A. E., McMahon, S. D., & Gipson, P. Y. (2004). Stressor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easurement issues and

- prospective effec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2), pp.412-425.
- Hammen, C. (1988). Self-cognitions, stressful events, and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pp.347-360.
- Hankin, B. L., Abramson, I. Y., Siler, M. (2001). Aprospective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adolesc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1), pp.607-632.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McGee, R., Silva, P. A.,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pp.128-140.
- Hayes, A. F., Glynn, C. Y., Hude, M. E. (2008). *Caut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coefficients and hypothesis tests from linear models with intera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Montreal, Canada.
- Hayes, R. A., & Matthes, J. (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pp.924-936.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 pp.213-218.
- Huff, C. O. (1999). Source Recency, and Degree of Stress in Adolescence and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34(133), pp.81-89.
- Huselid, R. R., & Cooper, M. L. (1994). Gender roles as mediators of sex differences in expressions of 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pp.595-603.
- Ingram, R. E., Miranda., & Segal, Z. V. (1998).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The Guilford Press.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pp.249-271.
- Lewinsohn, P. M., Rohde, P., Selley, J. R., & Baldwin, C. L. (2001).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4), pp.427-434.
- Marsh, H. W. (2002). *Structural equation models of latent interactions: Evaluation of alternative strategi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 Mazza, J. J., & Reynolds, W. M. (199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Depression, Hopeless, Social Support, and Major and Minor Life Event and Their Relation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8(4), pp.358-374.
- Pedhazur, E. J. (1997).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explaining and prediction*(3rd ed.). Forth Worth: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Schau, C. G., Tittle, C. K. (1985). *Educational equity and sex role development. Handbook for achieving Sex Equity through Education*, S. S. Klein(E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Steinberg, L., Dornbusch, S. M., & Brown, B. B. (1992).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 achieve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7, pp.723-729.
- Undheim, A. M., & Sund, A. M. (2005). School factors and the emergence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Norwegian adolescent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4, pp.446-453.



#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Jwa, Hyunsuk**

(Honam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on the relations between academic stresse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simple slope test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model was use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wave 4 of Korean Youth Panel Study (KYPS), and analyzed data of 3,121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der role stereotype ha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of students; and gender role stereotype of female stereotypic role showed moderating effects that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 of academic stress. Especially when students have the high level of gender role stereotype of female stereotypic role, the positiv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was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practice implication for adolescents was discussed.

---

**Keywords: Academic Stress, Depression, Gender Role Stereotype, Moderating Effect**